

“여행의 진미는 인생의 무거운 의무에서 잠시 해방되는 자유의 기쁨에 있다. 그래서 여행은 우선 떠나고 보아야 한다. 행운유수(行雲流水)가 곧 여행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안병욱의 사색노트’ 중에서> 지루한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이다. 특히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 버릴 절호의 기회인 여름 휴가 하나만을 바라보고 사는 직장인들이라면 휴가 여행은 더 없이 소중한 것이다. ‘여행’은 나그네라는 의미의 ‘여(旅)’ 자와 돌 아다닌다는 뜻의 ‘행(行)’ 자가 만나서 만들어진 말이다. 따라서 여행서는 나그네가 자신이 거닐어 본 경험을 책으로 쓴 것이다. 여행 서적은 보통 두 가지 기능을 한다. 하나는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상세한 가이드 역할과 또 하나는 읽을 거리 풍부한 문학작품처럼 감동을 전해주는 것이다.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여행서들은 이 두 가지 기능을 모두 충족시키며 독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대형 서점에서 베스트에 올라 있는 국내의 신간 여행서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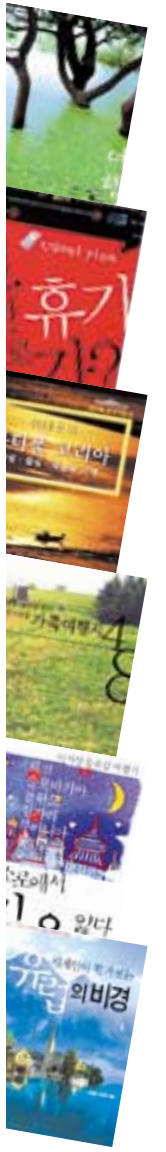
인적이 드문 호젓한 섬 여행은 여름 여행의 별미다.



여름 휴가 어디로? 여행 안내책 뒤져봐

신간 베스트셀러 여행서 6권

시원스레 곤개 뻗어있는 답양의 대나무 숲을 걷노라면 무더위와 함께 세상의 온갖 걱정 근심이 다 달아날 것만 같다.



죽기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 33
이두영 지음 | 랜덤하우스 중앙 | 9천원
얼마나 대단한 곳인데 ‘죽기 전’이란 상업적인 표현을 썼을까?
하지만 이 책에 소개된 그림만 보고서도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다!’란 탄성과 함께 ‘책 제목이 지나친 표현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된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비경 33곳을 소개하고 있다. 얽은 해무 속에 몽환처럼 다가오는 여수 거문도, 바다가 되고 싶은 시인의 마음을 담은 호수 입실 옥정호, 비바람이 남겨놓은 암석산인 진안 마이산, 안개와 이슬이 가꾸놓은 태백 고원의 고랭지 등이 ‘죽기 전에’라는 극단적인 수식어가 붙을 만큼 꼭 가봐야 할 곳으로 저자가 ‘강추(강력 추천)’하는 여행지들이다.
특히 우리나라 최고의 생태공원이라 할 만한 장영 우포늪은 현재도 육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30년쯤 후엔 환경변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사라질 지역이다. 또 야생화의 보고인 인제 곱배령 또한 계속 훼손되고 있고, 근산의 선유도 역시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선유도 특유의 호젓함과 신비로움을 언제 잃을지 알 수 없다. 이 책은 이런 저런 이유로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더 늦기 전에 가봐야 할 여행지들을 소개했다. 주로 여행지에 대한 소개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바다, 강, 산, 꽃으로 나누어 보기 쉽게 구성했다.

넌, 이번 휴가 어디로?
채지형 지음 | 영진닷컴 | 1만2천8백원
1년에 단 한번 뿐인 짧은 휴가 기간에 배낭여행을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갈지 고민하는 직장인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만한 책이다.
길어보아 일주일밖에 휴가를 낼 수 없는 샐러리맨을 위해 베트남과 캄보디아,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태국 북부 트레킹, 요즘 TV 드라마 촬영지로 인기를 얻고 있는 인도네시아 발리와 족 자카르타, 일본 규슈 여행 등 5가지 여행코스를 6~8일 만에 ‘완전 일주!’ 할 수 있는 노하우를 실었다.
또한 이 책의 두드러진 특징은 여행경로를 도와주는 지도와 달력에 표시한 일정표, 나라별로 놓치면 안될 즐길거리, 볼거리, 먹을거리, 살거리 등을 다양한 사진과 함께 실었다는 것이다. 참고로 여행하기 전 읽으면 좋을 책과 영화 인터넷사이트를 소개하는 세심함도 엿보인다.

이태훈의 뷰티풀 코리아
이태훈 지음 | 다룬세상 | 1만원
스포츠 서을 사진기자 출신인 이태훈씨의 ‘뷰티풀 세계여행’ 세번째 이야기 ‘코리아’ 편이다. 봄 향기에 흠뻑 젖은 선암사의 풍경소리, 외로운 산과 들녘에서 가을과 겨울이 교차하는 길목들 장승처럼 꽃피어 지키는 역사, 농부의 마음도 소의 마음도 이룩한

섬진강, 어부의 손길이 금빛 바다를 어루만지는 순천만 등 150여 컷의 황홀한 영상을 엮었다.
특히 이 책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을 세롭게 깨닫게 해 준다. 꽃잎을 발린 전북 익산 홍련암의 연꽃에서 피어나는 그윽한 향기는 정신과 몸을 살찌우게 한다. 또 시원스럽게 쪽쪽 뻗어있는 답양의 대나무 숲에서는 모든 번뇌를 놓고 자신을 되돌아 보게 만든다. 사계절마다 형태 색채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과 바다가 만들어 내는 아름다운 장면들을 보고 싶노라면 직접 찾아가 마음속에 담아오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한다.

여행작가 12인이 적극 추천하는 잊지 못할 가족여행지 48
한국여행작가협회 지음 | 살림 | 1만2천원
한국여행작가협회 12명이 평소 취재를 다니면서 ‘이곳만은 내 가족과 다시 오고 싶다’고 느낀 곳을 골라 소개한 책이다.
가족 드라이브 명소, 섬 여행지, 기차여행, 트레킹, 레저 등 다양한 소재를 심도 있게 다룬 것이 특징이다. 야생화 천국 한택식물원과 안성 배꽃마을이, 매혹의 북한강변 드라이브 코스 등 가족들과 가을 만한 전국의 명소가 총망라됐다. 찾아가는 방법과 맛집, 잠잘 곳, 즐길 만한 레포츠 등도 소개돼 실용성에서 충실했다.

여행작가협회 정보상 회장은 “이런 작업을 통해 성과물을 만들지 않으면 궁극적인 발전이 요원해질 것 같아 함께 작업을 하게 됐다”고 말한다.
책은 12가지의 테마로 나뉘어 각 테마별로 4개의 여행지를 다뤘다. 필요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고, 직접 사람에게 물어야 하는 경우는 휴대폰 번호까지 추가했다.
황금 소에서 길을 잃다
이지상 지음 | 북하우스 | 1만6천원
여행전문가 이지상이 안내하는 동유럽 여행기다. ‘변해가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오스트리아를 탐색해 나간다.
1부에서는 2002년 아내와 함께 한 여정을, 2부에서는 1992년 홀로 길을 나섰던 여정을 보여줌으로써 닮은 듯 다른 색깔을 지닌 두 가지 여행기가 한 책에서 공존하고 있다.
슬로바키아에서는 하나가 되어가는 동유럽의 모습, 불가리아의 소피아에서는 흘러드는 서유럽의 물결을 엿볼 수 있었다고 저자는 고백한다.
유럽 하면 주로 서유럽과 남부유럽을 많이 가지지만 실제로 동유럽은 음악과 미술 등 풍부한 문화 볼거리들이 가득해 한번쯤 나만의 여행을 계획하기 안성마춤이라는 저자의 설명은 벌써 우리를 마음을 동

유럽에 갖다 놓는다.
세계인이 꼭 가보는 유럽의 비경
이화득·이미경 지음 | 서울문화사 | 1만5천5백원
현직 고등학교 지리교사이자 여행전문가인 이화득·이미경 부부가 쓴 책이다. <렌터카 유럽여행>에 이은 두 번째 유럽 자동차여행기로, 한국인 또는 아시아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유럽 제일의 비경을 담았다.
마크 트웨인이 자신이 살아온 곳 중 가장 아름답다고 격찬했던 피어발트스타터 호수(스위스), 에비앙 생수의 고장인 에비앙(프랑스), 잘츠부르크의 세계 최대 얼음동굴(오스트리아), 고흐의 마지막 거처인 오베르프랑스 등 국내에 거의 소개되지 않은 관광지 4대부본이다.
또 가슴 설레는 독일의 아우투반과 스위스 산골마을의 아름다운 포돌길, 알프스의 만년설과 호수 경치를 바라보며 먹던 쌀밥과 파김치, 민박집 마당에서 생고기와 각종 야채로 푸짐하게 차려 먹던 저녁 식사 등 틀에 박힌 관광에서 벗어나 여유로우면서도 기억에 남을 만한 멋진 여행이 되도록 안내하는 책이다. 이 밖에 렌터카 이용하기 등 유럽자동차여행을 위한 자세한 도움말과 지도 등 유용한 정보가 가득하다.
김주필 기자 jkim@buddhapia.com

“수행길에서 만나는 스님들은 모두가 선지식이다”

스님 이야기

홀로 피었다가 홀로 지지만 그 향기만은 바람에 실려 멀리 멀리 전해지는 들꽃같은 스님들 85명의 진솔한 수행일화

이 책은 스님들의 수행과 일상사를 여과없이 진솔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스님들이 수행길에서 만난 스님들의 다양한 수행 이야기가 감동이라는 문체에 녹아 있어 재미와 감동을 더한다. 청정한 스님들이야말로 세상을 지탱해 주는 힘이며, 이러한 스님들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불자들은 살맛이 나고 희망을 갖게 된다.

- 현대불교신문 기사 중에서 -



지목 스님 외 14인 지음 | 신국판 | 448쪽 | 12,000원 | 여시아문



책에 나오는 스님들 - 무소유론 스승 법경 스님 / 20년 강좌와 저유 스님 / 사찰내의 '원조' 인양 스님 / 문법·사비시 읊어준 경희 스님 / 정각하지도 머나지 않는 원강 스님 / 열정의 인연운동기 전환 스님 / 한결같은 인욕·학식 지월 스님 / 수행으로서의 무한한 삶 용범 스님 / 후덕한 주지 백성 스님 / '산 거지' 자취 정유 스님 / 뱀과 같이 사소한 연연 스님 / 명문 처사 현신으로 돌본 보은 스님 / 옷 한 벌이 천 재산 전공 스님 / 진정한 무소유 스님 / '가야산 호랑이' 경원 스님 / 달빛과 바람의 조화 종원 스님 / '화엄신장' 같은 교학 수와 중원 스님 / 조선 지역권 현진 스님 / 중앙승가대 정구사 인가 앞강 강경 스님 / 배후 두루 받은 원다 스님 / 불교문학 발전 권익의 해관 스님 / 생애나눔기 실천교과 20년 종일 스님 / 뜨거운 피·정결한 가슴 해조 스님 / 열렬한 선지식 교승 스님 / '부리검은 나무' 종범 스님 / '공포의 목원법' 경학 스님 / 경제력 면면, 해계 면기도 법원 스님 / 해조유처럼 편한 현운 스님 / 가슴 뜨거운 소신과 원담 스님 / 운문인들의 귀감 홍문 스님 / 운문도량 '지킴이' 일진 스님 / 주란 뚜렷한 노력과 해원 스님 / 감각 뛰어나고 재주 많은 정안 스님 / 몸 호르도 거침없는 말과 글 지복 스님 / '명왕과 갈등' '공부' '승화' '불' 스님 / 해계 면기도 없는 일진 스님 / 이 시대의 '부부나 혼자' 향산 스님 / '호성' 지극한 목민수의 환기 스님 / 소탈해서 더욱 빛나는 원봉 스님 / '자비로운 눈빛, 맑은 미소' 효범 스님 / 따뜻한 마음, 말공한 강의 일호 스님 / 장과화와 '일문선' 계속 금산 스님 / '불교문화유산 지킴이' 종원 스님 / 나사렛 '민사행동' 자유 스님 / 농사짓고 공부하고 원문 스님 / 명자의 승품, 고통 함께 지루 스님 / 사회개혁운동 앞장 유복 스님 / '1등 교사' 후도 스님 / 전형적인 수행자로 일관 서암 스님 / 남다른 문학재능 재능 원월 스님 / 전법제일 '부부나'의 후에 원진 스님 / 구 포로 한인 성광 스님 / 산세·질순과 교강 정호 스님 / 언제나 반듯한 수행자 현이 스님 / 끊임없이 자공자 우전 스님 / '이성적 도신교양' 계획 지미 스님 / 미소 잃지 않는 '자비보살' 만호 스님 / 서릿발 같은 기상 현근 스님 / 90에도 어딘가 가서 법문 호영 스님 / 호기심처럼 덕덕한 종 명성 스님 / 지도정리와 이 타령 향문 스님 / 명교인적으로 승화 자유 스님 / 늘 초발심으로 정진 원송 스님 / 삶의 마스카라르쳐 온 법인 스님 / 옷이 한 걸 매진 마산 스님 / 자성할 학야의 도반 상목 스님 / 덕순한 가문의 계승자 보미 스님 / 도시로 입성한 '만능인' 현진 스님 / 수석사 '덕주대갈' 영수 스님 / 당당한 출가인의 표상 화강 스님 / 언제나 젊은 마음처럼 수암 스님 / 글자기 훈전하며 분사 금강 스님 / 글할·육신·사비 없는 상진 스님 / 한인함과 자성함의 조화 효범 스님 / 마음까지도 다 주는 석두 스님 / 속명을 불명으로 대서 스님 / 계모름 허우를 아는 지산 스님 / 만년 대마다 이어지는 수행 대공 스님 / '몸 아픈것도 내' 영호 스님 / '수행자의 여법법' 보려온 원마 스님 / 학문에 남다른 열정 상원 스님 / 만년 대마다 순수한 덕하는 영각 스님 / '불사빠' 제일 지문 스님 / 도실포로의 메타일 최후 스님 / 청소년으로 중요성 알려 준 옥주 스님

불교서적전문출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종로구 경지동 110-33
Tel : 02)737-0695
Fax : 02)737-0696